



### KB증권 越 주식 온라인 서비스 기념 '신짜오 베트남' 이벤트 진행

KB증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베트남 주식 온라인 매매서비스' 오픈 기념 '신짜오 베트남'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짜오 베트남' 이벤트는 베트남 주식을 거래한 모든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커피상품권 1매를 제공하고, 누적 5000만원 이상 거래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모바일 베트남 외식상품권 1매를 제공한다. 또한 KB증권은 연말까지 해외주식 신규 및 휴먼 고객 중 해외주식을 입고·매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91 데이즈(Days)'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주식을 포함한 모든 해외주식 자산 1억원 이상을 연속 91일 보유 시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문호 기자



### SK증권 ELS·ELB 각 1종 공모

SK증권은 6일까지 나흘간 주간연계증권(ELS) 1종 및 주간연계과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475회 ELS'는 홍콩항셍(HSCEI) 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 50) 지수 및 코스피200(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5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세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0% (6·12·18개월), 85% (24·30개월), 80% (36개월) 이상이면 연 6.70%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이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65% 이상이면 연 6.70%의 수익을 지급한다. /손업지 기자

### 현대차증권 최대 연 5.01% 수익 ELS

현대차증권은 4일부터 6일 오후 1시까지 총 10억원 규모의 원금비보장형 월지급식 ELS 상품 1종을 공모한다. '현대차증권 ELS 1921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50 지수(Eurostoxx50)와 니케이225지수(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월지급식 상품이다. 발행 후 6개월 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로 최대 연 5.01%의 수익을 지급한다. 매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종가기준)이면 월 0.4175%의 수익이 지급된다. /손업지 기자

#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주춤'... 3분기 '반등'

스마트폰·DP 사업 부진 성적 결과  
3분기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전망  
해외 신뢰도 상승·지배구조 과제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3분기에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2분기 평균 영업이익은 15조4140억원이다. 16조원을 웃돌것이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스마트폰 판매 부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7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쓸 것이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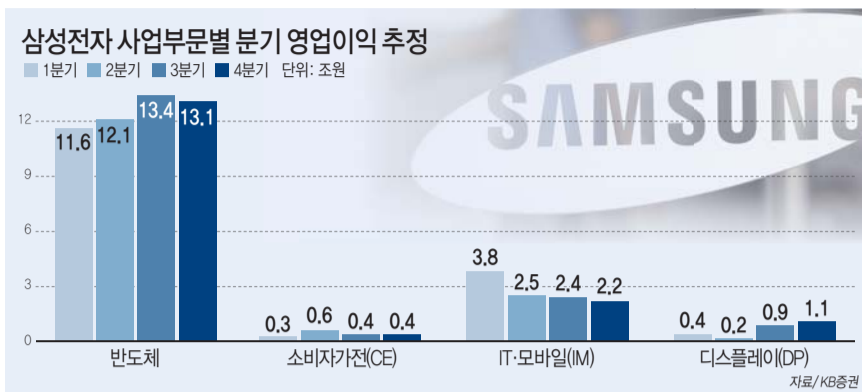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포트폴리오 다양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조 4140억원이다. 순이익은 11조7480억원이다. 매출액은 61조2710억원이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분기 영업이익(15조6400억원)보다 다소 떨어지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14조700억원을 시작으로 3분기 14조5300억원, 4분기 15조1500억원에 이어 올 1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사상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다.

부진한 성적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의 부진 때문이다.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S9와 갤럭시S9+의 출하량이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돌았고, 중소형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은 고객사인 미국 애플의 아이폰X 출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IT·모바일(IM)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2조520억원(NH투자증권 추정치)대로, 지난해 2분기(4조48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1560억원대에 그치면서 1년 전(1조7100억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반도체 부문은 '글로벌 슈퍼호황' 장기화에 힘입어 신기록을 다시 쓸 것으로 보인다. 예상 영업이익은 12조82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59.8%, 전분기 대비 11.0% 늘어난 수치다.

한국경제의 '1선발'에 대한 실망은 이르다는 평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구질이 속도가 떨어진 직구(스마트폰)를 보완해 줄 것으로 보여서다.

증권가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17조3300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기간(14조5300억원)보다 19.3%나 많은 수치로, 이 가운데 13조원 이상을 반도체 사업에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됐다.

IBK투자증권 김운호 연구원은 "D램 가격은 3분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2분기까지 부진하겠으나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도현우 연구원은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7조4000억원(전분기 대비 +14%)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이다"면서 "반도체 신규 캐파 가동이 시작되고, D램 가격 지속 상승이 실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고객사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실적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은 경계해야 할 변수다. 최근 중국이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시작, 메모리 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신뢰 'UP', 지배구조 개편은 속도  
글로벌 신뢰도 한층 두터워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달 삼성전자의 선순위 무담보채권 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05년 7월 이후 근 13년 만이다. 무디스는 치열한 경쟁과 본질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높은 산업 특성에도 삼성전자가 향후 최소 2~3년간 다수의 사업부문에서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적 리더십이 시장의 수위를 차지하고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더욱 강화된 기술적 리더십, 시장통합에 따른 안정된 경기 변동성과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토대로 향후 수년간 이익과 현금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배구조 개편은 삼성에 남겨진 숙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되면서 삼성그룹은 고민에 빠졌다. 전문학적 역수의 자분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거나,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삼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삼성은행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말을 아낀다.

지주사 전환 작업에 정통한 투자금융(IB)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관련 법률부터 세제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내용이 산더미 처럼 많다"며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다. 당장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온라인 높은 점유율·해외 진출 박차... 23일 상장

### IPO기자간담회 M CORSET

모두 현금 거래·무차입 경영 추구  
언더웨어 시장 확대 '기회요인'으로



글로벌 언더웨어 전문기업 엠코르셋이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엠코르셋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5, 6일 수요예측을 거쳐 12, 13일 청약일 실시하고 이달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엠코르셋은 브랜드 상표권을 획득해 제품을 직접 개발·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 20여년 간 TV홈쇼핑을 기반으로 자체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을 구축해 나가며 사업을 성장시켰다.

현재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과 3개 자사몰, 오픈마켓 등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도 약 130여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유 브랜드는 총 19개다. 특히 온라인 유통

망 중심 매출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실제 업계 내 매출 순위권 업체가 1~3%대 수익률을 보이는 것과 달리 엠코르셋의 영업이익률은 8.1%(2017년 기준)에 달한다.

이에 문영우 엠코르셋 대표이사(사진)는 "타 사는 점포 및 인력 관리비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지만 우리는 온라인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수익성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엠코르셋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다.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매출 성장률이 36.6%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은 1258

억원, 시장 점유율은 4위를 기록했다.

문 대표는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고,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강조했다. 엠코르셋의 주력 브랜드는 원더브라다. 이는 지난해 매출 실적의 약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9년부터 누적 매출액은 3448억원이다.

국내 언더웨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은 기회요인이다. 2015년에만 해도 1조8800억원에 불과했던 규모는 지난해 약 2조3900억원으로 커졌다.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 언더웨어 시장은 오는 2021년 약 7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점유율 1%만 가져가도 매출 7000억원 달성 가능성이 있다.

문 대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서 중국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1만100원~1만1500원으로 총 251만8500주를 공모한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



### HDC현대산업개발 '꿈의숲 아이파크'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6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7구역 재개발아파트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 단지는 1711가구 중 59~111㎡ 84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서울에서 4번째로 큰 약 66만㎡ 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 있고 북서울꿈의숲 내 위치한 꿈의숲아트센터와 상상특목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6호선 석계역도 이용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으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해 있다.

또 장위뉴타운 주변에는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경전철이 오는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위치한 1호선 광운대역으로는 GTX C노선이 계획돼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이 가깝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 역세권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의 커뮤니티 시설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 헬스장과 GX룸,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는 피트니스센터도 조성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 주식 '손바뀜' 활발... 코스피 회전율 152%

올해 상반기 투자자 간 '손바뀜'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상장주식 회전율이 152.10%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07%포인트 상승했다.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도 284.87%로, 27.60%포인트 높아졌다.

주식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회전율이 높

을수록 주주가 빈번하게 바뀌었음을 뜻한다. 예컨대 회전율이 1천%라면 주당 10차례의 손바뀜이 있었다는 의미다.

상반기에 주식 회전율이 100% 이상인 종목은 코스피 258개, 코스닥 829개였다. 반면 회전율 100% 미만 종목은 코스피 496개, 코스닥 394개로 각각 78개와 108개가 줄었다. /김문호 기자